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lothing Color and Exposure on Stereotype Formation of Women's Appeara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이 미 숙
박사후 연구원 박 성 은

Dept. of Consumer and Textiles Science, Ohio state University

Post Doc. : Mi Sook Lee

Post Doc. : Sung Eun Park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lothing color and exposure on stereotype formation of female appearance. The subjects for the research survey were 418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aejon, Korea.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six written scripts which described a woman wearing clothing manipulated by clothing color and exposure variab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test, crosstabs analysis,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dimensions (global image, appearance inference, and appearance evaluation) emerged from the subject responses. Clothing exposure had the greatest impact upon the stereotype formation of female appearance. The woman wearing exposed clothing was rated as "sexy", "confident", and "glamorous"

whereas the same woman wearing unexposed clothing was rated as “slim”, “humdrum”, “ladylike”, and “neat”.

Second, the gender of the subject played a role in forming stereotypes of women’s appearance. The male subjects rated the woman wearing exposed clothing as “sexy” and “glamorous” whereas the female subjects rated the same woman as “slim” and “pretty”.

Third, the male subjects evaluated the woman wearing exposed clothing in much more negative terms than the female subjects did, indicating that men tended to use ‘modesty’ to evaluate the woman whereas women tended to use “fashion trend” in addition to “modesty” as the important criteria when assessing women dressed in exposed clothing.

Fourth, the subjects judged the woman wearing exposed clothing to be an entertainer or prostitute in her early 20s.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s judged the woman wearing unexposed clothing to be either a university student or a professional business woman in her mid 20s.

주제어(Key Words): 의복노출(Clothing exposure), 색(color), 고정관념(stereotype formation)

I. 서론

인간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몇 가지의 구별되고 두드러지는 제한된 정보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정보처리자”이다(홍대식, 1990). 이와 같이,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정보처리경향을 고정관념(stereotype)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이란 대인에 대한 지식, 태도, 정서 및 행동에 관한 표상으로(Kunda, 2000), 한 문화권내에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형성된 과잉단순화되고 고정된 이미지를 말한다(강혜원, 1995).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어진 정보를 범주적으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복잡한 사회정보의 처리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주는 장점을 지닌 반면, 몇 개의 두드러진 정보에 의존하여 주어진 대상에 대한 판단을 형성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이나 편견을 유도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Devine, 1989; Fiske, 1998; Fazio, 1986; McGarty, 1999).

타인에 대한 사전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첫 대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단서에 의존하는데, 이때 의복은 신체적 외모와 아울러 중요한 판단의 근거

로서 사용된다. 타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의복변인(clothing variable), 착용자변인(target or wearer variable), 상황변인(context variable), 지각자변인(perceiver variable)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의복변인으로는 의복유형, 스타일, 색채, 유행성, 노출정도 등이 있다(고애란, 1990; Paek, 1985; 이주현, 1990; 김윤경·강경자, 2003, 김인숙·신소진, 1994; 조은영·홍병숙, 1995).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복과 신체적 외모가 인상형성 및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의복의 고정관념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신체적 외모와 의복단서가 조합된 자극물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신체적 외모를 제외한 의복변인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일반화된 고정관념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문화권 내에서 일반화된 의복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복 고정관념이 타인에 대한 판단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의복은 색, 디자인, 재질 등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의복의 색은 가장 가시적이고 두드러진 단서로서 색 자체가 지니는 상징성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

다(김윤경·강경자, 2003; 강혜원, 1995; 이주현, 1990). 따라서 의복의 색은 의복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로 의복의 노출정도가 있다. 의복 노출정도는 상황의 적절성, 정숙성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에 대한 판단 및 고정관념 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인숙·신소진, 1994; 고애란, 1990; Abbey, 1987; Cahoon·Edmond, 1987; Miller, 1982). 또한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며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의복단서는 착용자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의복이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의복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세대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과 고정관념

우리는 상대방을 지각된 몇 가지 정보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범주화하며, 그 범주의 일반적 속성에 근거하여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사회적 정보처리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인지과정이기보다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서 부분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순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Greenwald·Banaji, 1995; Devine, 1989). 이러한 고정관념은 성격특질, 물리적 특성, 역할 및 직업 등의 독립된 구성요소로 범주화되며(Deaux·Lewis, 1984), 타인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의식이나 책략에 근거한 처리가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인상형성, 대인추론, 인과귀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여진다(이재호·방혜정, 2003).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의복변인이 인상형성 및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의복에 의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독립변인인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복의 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색채는 의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서 의복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대인지각에 있어서 의복 착용자의 표면효과로서 지각되며, 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 작용, 상징성 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해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윤경·강경자, 2003). 이인자·송선옥(1982)은 첫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과 인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색이 인상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강혜원(1995)도 색채는 의복에 있어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의복의 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차미승(1992)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파랑과 자주색의 조합은 성숙한 이미지를 전달하였으며 파랑과 노랑색의 조합은 어려워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빨강색은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주현(1990)은 suit 차림에서 의복색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파랑색은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빨강색은 화려하고 특이한 이미지를, 노랑색은 깔끔하고 밝은 이미지를, 검정색은 깔끔하지 못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항미·김재숙(1998)은 남자 교사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검색 의복은 평가적 차원에서, 적벽돌색 의복은 사교적인 차원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이혜숙·김재숙(1998)은 한복 색에 대한 연구에서 남색은 평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회색은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

적인 평가를 받았고, 빨강색은 두드러진 단서로 매력성 차원에서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의복색은 착용자에 대한 판단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복단서로 제시되었으며 여러 색 중에서 빨강색과 파랑색이 가장 구별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빨강색은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 조사된 모든 색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착용자에게 개성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빨강색은 착용자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반면, 파랑색은 착용자에게 지적이고 능력있는 인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의 노출정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복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보수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신체노출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 성의 개방화 등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의복에서의 신체노출에 대한 태도도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체노출은 정숙성과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복에서의 정숙성은 문화적 배경,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대, 장소, 그리고 개인의 성별, 연령,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신체노출과 같은 두드러진 의복이나 신체조건은 인상형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Miller, 1982). Cahoon · Edmonds(1987)는 사람들을 신체를 노출한 의복스타일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보여 목을 깊게 노출하거나 비치는 형태의 suit와 blouse는 관리직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Abbey(1987)는 연구결과 노출이 적은 옷을 입은 여성은 상대의 성을 불문하고 성격적으로 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것으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보다 관능적이고 유혹적이며 경박하고 자유분방한 성에 대한 태도를 지니며 사려가 얇고 불성실하다고 하였다. 김인숙 · 신소진(1994)의 연구에서 노출차림은 외모매력 · 선호평가와 예의 · 정숙성 점수가 낮고 성적 자극성과 개성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며, 고애란(1990)의 연구에서는 다리 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노출이 심한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주의집중성과 자기과시가 강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볼 때, 여성의 신체노출 의복은 타인에 대한 판단 형성시 중요한 시각적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은 착용자에게 관능적이나 경박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은 착용자에게 정숙하고 평범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복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각하게 되는 시각적인 단서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타인의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Kaiser, 1990). 따라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첫 대면과정에서 개인이 착용한 의복단서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는 두드러진 의복단서로 작용하여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으로 피험자간(Between-subject) 설계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독립변인으로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 그리고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자의 성별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인으로는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였으며, 그 외에 의복 착용자에 대한 호감정도와 연령 및 직업 추론이 부가적인 관심으로서 조사되었다.

2.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판단형성시 중요한 가시적 단서로 제시되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의복의 색은 표현적인 단서로서 의복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빨강색은 의복 착용자에게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파랑색은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회색은 평범하고 정숙한 이미지를 전달할 것이다.

〈가설 2〉 의복의 노출정도는 정숙성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은 의복 착용자에게 신체적으로 매력있고 자신감 있으며 관능적인 이미지를 전달 하나 평가적 차원에서는 정숙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은 의복 착용자에게 정숙하고 평범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평가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가설 3〉 여성의 의복차림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남자 지각자는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을 이성적인 대상으로 지각함으로써 매력있고 관능적이라고 평가하며, 여자 지각자보다 노출의복을 착용한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으로 총 420명이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피험자는 모두 의상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었으며, 남녀 각각 210명씩이 선정되었다. 피험자의 연령은 19~32세이며 평균연령은 21.48세였다.

4.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얼굴, 표정, 체형 등의 다른 가외변인의 영향을 줄이고 의복단서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고정관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극인물에 대한 변인의 통제가 자유로운 Script를 자극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Script는 220자 내외로 이루어진 짧은 글로서 주어진 사회적 맥락 내에서 어떤 여성의 의복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의 변인과 관련된 단서인 자극인물의 성별(여성)과 의복단서(의복의 색과 노출정도), 그리고 사회적 맥락정보(시내의 한 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모두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극물로 사용한 Script는 사진이나 그림에서 불가피하게 제시되는 착용자의 얼굴인상, 체형 등의 가외변인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cript는 연구의 독립변인인 의복의 노출정도(노출, 비노출)와 의복의 색(빨강, 파랑, 회색)에 의한 2×3의 요인설계에 따라 총 6개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독립변인의 수준에 대한 조작을 살펴보면, 의복의 노출정도는 노출과 비노출의 2 수준으로 조작되었는데, 노출 의복은 몸에 밀착되는 형태로 등과 어깨가 드러나는 홀터넥 스타일의 상의와 미니스커트로 구성되었으며, 비노출 의복은 몸에 밀착되지 않는 형태로 등근 네크라인의 반소매 상의와 무릎길이의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Script는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 신체노출 변인에 대한 조작정도의 타당성과 의복설명을 위한

단어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2) 설문지 제작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의 사회적 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미미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한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험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Ehrlich과 Rinehart(1966)은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잘 구조화된 의미미분척도는 매우 효과적인 측정도구이나, 이러한 측정도구는 고정관념(stereotype)과 편견(prejudice)의 정도를 과장하여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용된 언어에 대하여 피험자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Berghe(1966)은 고정관념 연구에서 자유응답식 질문(open-end question)의 사용은 피험자의 머릿속에 형성된 사고(personal imagery)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질적인 연구결과는 내용분석 과정에서 분석적인 범주로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정관념 연구를 위해 자유응답식 질문과 의미미분척도의 상호보완적인 사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 고정관념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피험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Script에 제시된 여성의 의복에 대한 설명을 읽고 피험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형용사 형태로 자유응답식(open-end question)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측정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는 주어진 하나의 Script를 읽은 후, Script에 제시된 의복 착용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되었다. 한편, 피험자간 응답의 수가 달라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피험자는 의복 착용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3가지로 한정하여 적도록 하였다.

이 밖에 부가적인 관심으로 착용자에 대한 호감 정도가 7점의 Likert 척도(1: 매우 호감이 가지 않는다, 7: 매우 호감이 간다)로 제시되었으며 그 외에

착용자의 직업 및 연령추론, 피험자의 성별과 연령을 묻는 인구통계적인 문항이 추가되었다.

5.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의상관련 교양과목을 맡은 담당교수의 허락을 얻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설문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는 작성된 직후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420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것을 제외한 총 417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각 피험자가 Script에 제시된 의복 착용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응답식으로 3가지로 한정하여 기술하도록 한 질적인 자료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내용분석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연구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분석의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Avery·Ferraro,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류학을 전공하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준거집단과의 토론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모든 응답을 기록하고 이 중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표되는 응답을 선정한 후, 응답내용을 의미상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총 137개의 응답내용은 61개의 대표적인 응답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다시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형성된 범주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2차적으로 10명의 전문가 각각에게 독립적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응답내용은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각 응답은 10명의 평가자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분류한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부가적으로 조사한 의복 착용자에 대한 호감정도, 연령 및 직업 추론문항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1.5)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등의 통계방법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분석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응답식으로 조사된 설문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크게 전반적인 이미지, 외모에 대한 추론, 외모에 대한 평가의 3차원으로 범주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는 '섹시한', '개성 있는', '단정한', '여성스러운', '대담한', '화려한', '지적인', '천박한', '차가운', '청순한' 등 신체적 외모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21개의 대표적인 응답내용이 제시되었다. 외모추론 차원은 '몸매가 균형잡힌', '날씬한', '키가 큰', '화장이 진한',

'이목구비가 뚜렷한', '젊어보이는', '안경을 쓴', '하이힐을 신은' 등 착용자의 체형, 얼굴, 화장, 헤어스타일 및 악세사리 착용에 대한 28개의 대표적인 응답내용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체형에 대한 추론이 전체의 6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외모평가 차원에는 '예쁜', '마음에 드는', '호감 가는', '매력적인', '못생긴', '그저 그런' 등에 대한 8개의 대표적인 응답내용이 제시되었으며, 그 외에 기타에 해당되는 4개의 응답내용이 제시되었다.

2.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연구변인별로 응답내용을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빈도분석 결과에서 각 연구변인별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응답내용을 5순위까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복의 색상보다 노출정도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색상은 개인의 성격이나 내적 특성을 반영하는 단서로는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의복의 노출정도보다 덜 중요하게 사용되는 반면, 의복의 노출정도는 사회적인 바람직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표 1>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집단별 빈도분석

n=417

순위	변인	노출			비 노출		
		빨강(n=70)	파랑(n=69)	회색(n=70)	빨강(n=69)	파랑(n=70)	회색(n=69)
1	완벽한	예쁜	완벽한	평범한	날씬한	평범한	
		22(31.4%)	18(26.1%)	19(27.1%)	15(21.7%)	23(32.9%)	16(23.2%)
2	날씬한	완벽한	날씬한	예쁜	평범한	예쁜	
		20(28.6%)	17(24.6%)	18(25.7%)	14(20.3%)	10(14.3%)	13(18.8%)
3	예쁜	키가 큰	예쁜	날씬한	예쁜	날씬한	
		15(21.4%)	16(23.2%)	16(22.9%)	12(17.4%)	10(14.3%)	13(18.8%)
4	키가 큰	날씬한	화장이 진한	개성있는	키가 큰	단정한	
		11(15.7%)	14(20.3%)	8(11.4%)	6(8.7%)	5(7.2%)	8(11.6%)
5	섹시한	화장이 진한	키가 큰	키가 큰	못생긴	여성스러운	
		10(14.3%)	9(13.0%)	7(10.0%)	6(8.7%)	5(7.1%)	7(10.1%)

때문에 타인에 대한 평가를 형성할 때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고정관념화된 평가를 형성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의 색상에 따른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빨간색 의복 착용자는 균형 잡힌 완벽한 외모에 섹시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랑색 의복 착용자는 키가 크고 날씬한 외모를 지니는 색상에 따른 뚜렷한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회색 의복 착용자는 평범한 외모에 단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색은 표현적인 단서로서 의복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파랑색은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연구결과 파랑색은 색상에 따른 뚜렷한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의복의 형태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 결과(이주현, 1990)를 살펴보면, 파랑색은 특히 suit 차림과 조합되었을 때, 지적이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suit 차림이 아닌 여성적인 dress 차림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의복의 형태에 따라 색상변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는 의복의 색과 형태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복의 노출정도에 따른 두드러진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균형 잡힌 완벽한 몸매에 섹시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지각된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날씬하지만 몸매는 좋지 않으며 평범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여성스럽고 단정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노출의복에서는 '슬집여자 같은', '사치스러운', '경박한'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비해, 비노출 의복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드러진 고정관념으로 제시되진 않았으나, 노출의복은 비노출의복에 비해 의복 착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복의 노출정도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 형성에 영향을 미쳐,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은 의복 착용자에게 신체적으로 매력 있고 자신감 있으며 관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나 평가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은 정숙하고 평범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평가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의 내용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노출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노출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뛰어난 몸매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수지(1996)도 신체만족도와 의복이 몸에 맞는 정도는 상관이 있어 외모에 자신이 있을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이나 미니스타일을 선호하며,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노출정도에 상관없이 두 집단 모두에서 여성 착용자에 대해 날씬하고 예쁠 것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현대 사회의 미적 기준이 날씬함과 아름다움에 있기 때문에 여성을 대할 때 이러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2〉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각 집단의 내용분석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만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의복의 노출정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은 섹시하고 자신 있는 이미지를 지니는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은 청순하며 단정하고 귀엽고 여성스러우며 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차원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는 화장이 진하고 키가 크며 균형 잡힌 완벽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예상된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 착용자는 가벼운 화장에 평범하고 통통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었다. 의복의 색상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이미지 차원에서 빨간색은 섹시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파랑색은 개성 있는 이미지를 주는 반면, 회색은 개성이 없고 단정하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외모차원에서 빨간색 의복 착용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적인 외모를 지닌 것으로, 회색 의복 착용자는 작은 키의 평범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외모

<표 2>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비교

n=417

종속변인	독립변인	노출			비노출		
		빨강(n=70)	파랑(n=69)	회색(n=70)	빨강(n=69)	파랑(n=70)	회색(n=69)
이미지 차원	섹시한	10(14.3%)	4(5.8%)	3(4.3%)	2(2.9%)		
	세련된	2(2.9%)			4(5.8%)		1(1.4%)
	자신있는	3(4.3%)	2(2.9%)	2(2.9%)			
	개성있는	2(2.9%)	4(5.8%)	1(1.4%)	6(8.7%)	3(4.3%)	
	단정한				2(2.9%)	4(5.7%)	8(11.6%)
	여성스러운				2(2.9%)	3(4.3%)	7(10.1%)
	지적인				1(1.4%)	3(4.3%)	4(5.8%)
	청순한				2(2.9%)	4(5.7%)	5(7.2%)
외모추론 차원	귀여운				2(2.9%)	2(2.9%)	2(2.9%)
	평범한	3(4.3%)	3(4.3%)	5(7.1%)	15(21.7%)	10(14.3%)	16(23.2%)
	통통한	1(1.4%)	2(2.9%)		2(2.9%)	2(2.9%)	3(4.3%)
	완벽한	22(31.4%)	1(1.4%)	19(27.1%)	2(2.9%)	4(5.7%)	3(4.3%)
	키가 큰	11(15.7%)	16(23.2%)	7(10.0%)	6(8.7%)	5(7.1%)	1(1.4%)
	키가 작은			1(1.4%)			4(5.8%)
	화장이 진한	9(12.9%)	9(13.0%)	8(11.4%)	2(2.9%)	1(1.4%)	1(1.4%)
	화장이 연한			1(1.4%)		1(1.4%)	6(8.7%)
이목구비뚜렷	3(4.3%)	2(2.9%)	2(2.9%)				

* 집단에 따라 비교적 차이가 나타난 결과만을 제시한 것임.

평가 차원에서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의 노출정도와 색상이 조합된 6개의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빨간색 노출의복은 섹시한 이미지를, 회색의 비노출 의복은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의 독립변인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서로 유사한 이미지를 지니는 의복단서가 결합되면 이들 간의 상승효과로 더 강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3.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외모의 고정관념 비교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고정관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피험자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다

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복의 노출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의복의 노출정도에 따른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남자는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에 대해 '글래머의', '섹시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반면, 여자는 '날씬하다', '예쁘다'라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에 대해서는 남자는 '평범하다', '예쁘다'는 고정관념을 가진데 반해, 여자는 '날씬하다', '평범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남자는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을 성적인 측면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여자는 미적인 측면으로 평가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여자는 남자보다 의복의 노출정도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여성 착용자에 대해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에서 보여

지는 일치성 효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상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Fiske, 1998; Banaji · Greenwald, 1995; Kunda, 2000)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의복의 노출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지각자의 성별과 의복의 노출정도는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출의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닌 반면, 비노출 의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의복차림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판단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에서 남자가 여자 지각자보다 신체노출 의복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와는 달리, 남자는 신체노출 의복 착용자를 매력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여자 지각자보다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출의복 여성 착용자를 평가할 때, 여자는 “정숙성(modesty)”만이 아니라 “유행성(fashion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반면, 남자는 “정숙성(modesty)”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복의 색에 따른 고정관념은 지각자의 성별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자는 빨강색 의복 착용자에 대해서는 ‘섹시하다’는 고정관념을, 파랑색 의복 착용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못생겼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색 의복 착용자에 대해서는 남녀 피험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의복의 색, 노출정도, 지각자 성별이 착용자에 대한 호감에 미치는 영향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 지각자의 성별이 여성 착용자에 대한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착용자에 대한 호감은 1(전혀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7(매우 호감을 느낀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는 착용자에 대한 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각자의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여성 의복 착용자에 대하여 더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나, 전반적인 호감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각자의 성별이 여성 착용자에 대한 호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착용자에 대한 호감		F 값
		평균	표준편차	
피험자 성별	남자(n=207)	4.12	1.80	11.70***
	여자(n=209)	3.54	1.67	
	계	3.83	1.76	

5. 의복의 색, 노출정도, 지각자 성별이 착용자의 연령추론에 미치는 영향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 지각자의 성별이 여성 착용자의 연령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복의 노출정도가 착용자의 연령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입은 여성 착용자가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 착용자보다 더 젊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4〉 의복의 노출정도가 착용자의 연령추론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착용자의 연령 지각		F 값
		평균(세)	표준편차	
노출 정도	노출(n=207)	22.67	.72	47.94***
	비노출(n=209)	25.38	.72	
	계	24.03	.72	

6. 의복의 색, 노출정도, 지각자 성별이 착용자의 직업추론에 미치는 영향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 지각자의 성별이 여성 착

용자의 직업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착용자의 직업은 의복의 색($\chi^2=31.12, p<.05$)과 노출정도($\chi^2=136.29, p<.001$)에 따라 다르게 추론되었으며, 특히 의복의 노출정도가 착용자의 직업 추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주로 연예계(연예인, 모델, 댄서 등)와 유흥업(다방, 술집 종업원)으로 추론된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주로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등)과 대학생으로 추론되었으며 전문직과 패션관련업에 종사한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의복의 색에 따른 차이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의복 착용자는 회색 의복 착용자에 비해 연예계와 패션관련업으로 추론된 반면, 회색 의복 착용자는 사무직과 대학생으로 추론되었으며, 특히 빨간색 의복 착용자는 다른 의복 착용자보다 유흥업과 무직으로 추론되는 경향이 높았다.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착용자의 직업 추론이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chi^2=76.51, p<.001$)와 여자($\chi^2=64.36, p<.001$)는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을 연예계와 유흥업 종사자로,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

복을 착용한 여성을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로 추론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에 대한 직업추론에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자(36.6%)는 남자(27.0%)에 비해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를 연예인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은 큰 반면, 남자(30.0%)는 여자(17.8%)에 비해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성의 신체노출 의복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의복의 색은 여자($\chi^2=37.86, p<.01$) 피험자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빨간색 의복 착용자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무직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회색 의복 착용자에 대해서는 사무직, 학생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반적인 이미지, 외모

<표 5>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착용자의 직업 추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의복의 노출정도		의복의 색			계
		노출	비노출	빨강	파랑	회색	
착용자의 직업	전문직	4(2.0%)	16(8.0%)	5(3.8%)	8(6.0%)	7(5.1%)	20(5.0%)
	사무직	22(10.9%)	61(30.3%)	22(16.9%)	21(15.7%)	40(29.0%)	83(20.6%)
	연예계	64(31.8%)	7(3.5%)	24(18.5%)	28(20.9%)	19(13.8%)	71(17.7%)
	유흥업	48(23.9%)	3(1.5%)	24(18.5%)	12(9.0%)	15(10.9%)	51(12.7%)
	패션관련	12(6.0%)	25(12.4%)	14(10.8%)	14(10.8%)	9(6.5%)	37(9.2%)
	대학생	30(14.9%)	51(25.4%)	22(16.9%)	26(19.4%)	33(23.9%)	81(20.1%)
	프리랜서	5(2.5%)	8(4.0%)	3(2.3%)	8(6.0%)	2(1.4%)	13(3.2%)
	주부	0(0.0%)	8(4.0%)	2(1.4%)	5(3.8%)	1(0.7%)	8(2.0%)
	무직	14(7.0%)	11(5.5%)	12(9.2%)	6(4.5%)	7(5.1%)	25(6.2%)
	기타	2(1.0%)	11(5.5%)	2(1.4%)	6(4.5%)	5(3.8%)	13(3.2%)
계		201(100%)	201(100%)	130(100%)	134(100%)	138(100%)	402(100%)

추론, 외모평가의 3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복의 색상보다 노출정도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는 균형 잡힌 완벽한 외모에 섹시하고 자신 있는 이미지로,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 착용자는 날씬하지만 평범한 외모에 청순하고 단정하며 여성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로 고정관념화 되었으며, 빨간색은 섹시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파랑색은 개성 있는 이미지를, 회색은 개성 없고 단정하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한편,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는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빨간색의 노출의복과 회색의 비노출의복은 변인간의 상승효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복 고정관념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남자는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에 대해 '글래머의', '섹시하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반면, 여자는 '날씬하다', '예쁘다' 라는 고정관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는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을 성적인 측면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여자는 미적인 측면으로 평가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여성 착용자에 대해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인 결과는 자신이 속한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상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Fiske, 1998; Greenwald & Banaji, 1995)와 일치한다.

셋째, 의복의 색, 노출정도, 지각자 성별은 여성 의복 착용자에 대한 호감, 연령 및 직업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여성 착용자에게 호감을 보였으며,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가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 착용자보다 더 젊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착용자의 직업은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에 영향을 받았는데,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는 주로 연예계와 유흥업 종사자로,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 착용자는 사무직 종사자와 대학생으로 추론되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 의복 착용자는 연예계와 패

션관련업으로, 회색 의복 착용자는 사무직과 대학생으로, 빨간색 의복 착용자는 특히 유흥업과 무직으로 추론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자는 여자에 비해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 착용자를 유흥업 종사자로 추론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 여성의 신체노출 의복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복의 고정관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의복에 의한 고정관념의 존재를 밝히고,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의복의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질적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의미 해석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연구변인인 의복의 색상과 노출정도는 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서 여러 의복변인중 어떤 의복변인이 상호작용효과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의복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상관리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동일한 의복을 착용한 여성에 대해서도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복변인뿐 아니라 의복 착용자와 지각자의 성별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의복에 대한 남녀 지각자의 고정관념을 연구하였으므로, 남성의 의복에 대한 남녀 지각자의 고정관념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흥미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유응답식 질문을 통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관념을 연구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유응답식 질문과 의미미분척도의 상호보완적인 사용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고에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 강경자(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인숙, 신소진(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501-514.
- 이수지(1996).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 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송선옥(1982). 외복과 인물이 첫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27-39.
-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김미라(2000). 사회적 범주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한국인지과학회논문지, 12(1/2), 43-54.
- 이재호, 방희정(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점화효과. 인지과학, 14(2), 37-48.
- 이주현(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미, 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조은영, 홍병숙(1995).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5), 23-737.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1990). 사회심리학. 박영사.
-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and Harnish, R. (1987).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8-126.
- Avery, R. J. & Ferraro, R. (2000). Verisimilitude or Advertis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2), 217-244.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e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erghe, P. L. (1966). Checklists versus open-ended questions: A comment on "A brief report on the methodology of stereotype research". *Social Forces*, 44(3), 418-419.
- Cahoon, D. D. & Edmonds, M. (1987). Estimates of opposite 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 clothing sty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5, 406.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hrlich, H. J. & Rinehart, J. W. (1966). On checklist and open-ended questions: A reply. *Social Forces*, 44(3), 420-421.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NY: McGrawHill.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slothing*(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Miller, F. G. (1982). Clothing and physical impairment: Joint effect on person percep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3), 265-270.
- Peak, S. L. (1985).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2004년 2월 4일 접수, 2004년 9월 2일 채택)